# 부처님은 왜 비유를 통해 설법하셨을까

##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 13. 비유에 대해서 ㊦

해인사 장경판전의 팔만대장경의 모습. 불경은 부처님 설법을 기록한 것이다. 부처님 설법에는 고도의 비유가 담겨있다.

**헝겊의 비유라는 경에 관해**

종교인은 자주 비유에 의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복음서(福音書)의 한 구절은 '예수, 모두 이런 것들을 비유로써 군중들에게 말씀한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다' 라고 쓰고 있다. 그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는 매우 자주 비유로써 이야기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붓다도 또한 자주 비유로써 이야기한 사람이었다.

비유는 이 스승에게 있어서도 또한 그 설법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이 스승의 중요한 설법의 몇 개는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다. 〈전유경(箭喩經, 독화살을 비유한 경〉 〈포유경(布喩經, 헝겊을 비유한 경)〉 〈파차구다화유경(婆蹉衢多火喩經, 밧쟈를 위해서 설교한 불을 비유한 경)〉 등은 이러한 설법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 중 하나인 〈포유경〉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그때 부처님은 슈라바아스티(사위성)의 제타(Jeta)의 정원(庭園)에 계셨다. 어느 날 세존은 비구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더럽고 때 묻은 헝겊이 있다고 하자. 염색공(染色工)이 이것을 혹은 남색(藍色)으로 혹은 황색(黃色)으로 혹은 홍색(紅色)으로 혹은 천색(?色)으로 염색하려고 이것을 염색 물통에 담가두었다고 하자. 그 때 이 헝겊은 색깔이 선명하게 물들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그러할까. 그것은 헝겊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그와 같이 비구들이여, 그대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때는 좋지 못한 결과를 예기(豫期)하여야 하리라. 또 비구들이여, 여기에 때 묻지 않은 깨끗한 헝겊이 있어서, 이것을 염색공이 남(藍)으로 황(黃)으로 홍(紅)으로 혹은 천(?)으로 염색하려고 염색 물통에 넣었다면 어떠할까. 그때 이 헝겊은 빛깔도 선명하게 염색되리라. 어찌하여 그러한가. 그것은 헝겊이 깨끗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비구들이여, 그대들의 마음이 깨끗하면 좋은 결과를 예기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 스승은 또다시 무엇이 마음의 더러움인가를 말씀하고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 버리는 방법을 말씀하였으며 또 더러움이 없는 마음의 모습에 관해서 말씀하였다.

**모든 것은 불탄다 라는 비유**

또 〈연소(燃燒)〉라는 제목의 경전, '경전(耕田)' 이라는 제목의 경전 혹은 '성읍(城邑)' 이라고 불리는 경전 등은 작은 경전이긴 하지만 석존의 설법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며, 그 구성도 또한 비유를 가지고 그 뼈대를 삼은 것들이다. 그 중의 하나 '연소' 라는 제목의 경전은 유럽의 불교학자들이 가끔 예수의 '산상(山上)의 수훈(垂訓)' 에 비교하여 '산상(山上)의 설법' 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그때 석존은 천 사람의 비구들과 함께 가야산에 있었다. 거기에서 석존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였다.

"비구들이여, 일체(一切)는 불타고 있느니라. 비구들이여, 일체가 불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비구들이여, 눈이 불타며,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불타고 있다. 귀는 불타며, 코는 불타며, 혀는 불타며, 몸은 불타며, 뜻(의(意)도 또한 불타며, 그 접촉하는 것, 모두 불타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무엇에 의해서 불타는 것일까. 그것은 탐욕의 불에 의해서 타며, 진에(瞋?)의 불에 의해서 타며, 우치(愚癡)의 불에 의해서 타며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불꽃으로 타며 수고뇌민(愁苦惱悶)의 불꽃이 되어 타고 있느니라."

그리고 붓다는 이러한 인생의 모습은 모름지기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설법은 이 스승의 전도(傳道)의 초기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비유는 여러 번 반복되었으며, 오랫동안 전승(傳承)되어 〈법화경〉의 '삼계화택(三界火宅)' 의 비유 등을 낳기에 까지 이르렀다.

**손톱위의 흙에 비유하여**

또다시 이 스승은 그 설법의 모든 곳에 교묘한 비유를 쓰면서 그 설명하는 것의 이해와 인상(印象)에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은 자주 한줌의 흙을 쥐고 손톱 위에 얹으면서 법을 설명하였다.

"비구여, 다만 이런 정도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항상 존재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비구여, 만일 이 손톱 위의 흙만큼한 것이라도 항상 존재하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 가르침에 의해서 고(苦)를 멸(滅)할 수는 없으리라."

제자들은 이 스승에 의해서 모든 것의 무상(無常)함을 배웠고, 이치(理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해가 모든 사유(思惟)와 실천의 기반이 되어 작용하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해는 다시 더 깊어져야 하며 그 인상은 다시 더 힘을 얻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자주 이러한 비유를 씀으로써 설법을 되풀이 하였다.

**파초(芭蕉)의 비유**

또한 이 스승은 자주 파초의 비유를 들어서 법을 이야기하였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견고(堅固)한 재목(材木)을 얻기 위해서 큰 파초나무에 가는 것과 같도다. 그는 날카로운 도끼로써 그 뿌리를 끊고 그 가지를 자르며 그 껍질을 벗긴다. 그러나 그는 원하는 부재(膚材)조차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견제(堅材)를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은 이 스승에 의해서 일체(一切)가 무상하며 무아(無我)함을 알게 되었다. 무아의 이치(理致)도 또한 쉽게 내 몸에 붙는 것은 아니다. 그 무아의 이치를 붓다는 여기에서 더 강하게 그들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를 설명한 것이다.

**나뭇잎의 비유**

또 예를 들면 이 스승은 고삼비의 신서림(申恕林)에 있었을 때 나뭇잎을 몇 잎 손에 쥐면서 이렇게 말한 일도 있었다.

"비구들이여, 지금 내 손에 있는 나뭇잎과 이 숲의 나뭇잎과는 어느 것이 더 많겠는가."

"대덕(大德)이시여, 세존의 손에 있는 나뭇잎은 적으며 저 숲의 나뭇잎은 많습니다."

"비구들이여, 그것처럼 내가 설명하지 않은 것은 많으며 설명한 것은 적다. 그러면 어찌하여 나는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을까. 또 무엇을 나는 설명하였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 스승은 저 '사제설법(四諦設法)' 이야말로 내 설법의 근본이며 이것에 의해서 노력할 것과 이것에 의해서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 악행의 보응은 어찌되나

**문** 위에서 밝힌 것은 적선(積善)의 인과(因果)만 밝혔고, 악의 보응은 밝힘이 있지 않으니, 계속해서 그것을 밝혀 후대의 몽매한 선비를 깨우친다면 교리(敎理)에 있어서 더욱 자세하게 갖춤이 되지 않겠는가.

**답** 분명하다 질문함이여, 내가 말하고자 했으나 그 단서를 구하지 못했더니, 지금 그대가 책발하니 내 마음을 헤아렸다.

무릇 착함은 덕을 쌓음 보다 훌륭함이 없고, 악함은 가만히 해침보다 흉악함이 없다. '가만히 해침' 이란 것은 무안인가. 귀신과 물여우를 말함이다. 귀신과 물여우가 사람을 해침은 그윽하고 은미한데 있어 사람이 환하게 알지 못하는데,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그와 비슷하기 때문에 '가만히 해침' 이라 말한다.

대체로 사랑이나 호랑이의 포학함은 함정을 시설하여 대비할 수 있으며, 독사나 전갈의 참담함은 지팡이나 회초리로써 제어할 수 있다. 칼이나 도끼가 비록 날카로워 갑옷과 투구로써 방비할 수 있으며, 짐새의 독이 비록 흉악해도 근신(勤愼)함으로써 피할 수 있지만 '가만히 해침' 의 피해는 도망할 만한 위치가 없으니 네 가지의 흉악하고 포악함 보다 심하다하지 않겠는가.

## 이익을 도모하면 어진 마음이 사라지니 이런 사람은 王法의 엄한 형벌을 받는다

시랑이나 호랑이의 피해는 산림(山林)에 있지만 '가만히 해침' 의 피해는 놀며 잔치하는 데서 나오며, 독사나 전갈의 피해는 초택(草澤)에 있지만 '가만히 해침' 의 피해는 말하고 웃는 데서 일어나며, 칼이나 도끼의 피해는 그 몸에 그치지만 '가만히 해침' 의 피해는 가족에게 미치며, 짐새의 피해는 완전히 그 몸에만 있지만 '가만히 해침' 의 피해는 그 체(體)를 해치니, 사자(四者)의 재앙보다 심하다 하지 않겠는가.

고금(古今)의 어질고 훌륭한 사람이 '가만히 해치는 자' 에게 피해를 당한 자 이루다 셀 수도 없으며, 그리고 천하 후세가 함께 그를 슬퍼한다. 해치는 자는 그를 요행으로 여기고, 모함한 자는 그를 괴롭히고, 괴롭히는 자는 그 삶을 잔해 한다.

요행을 구하는 자는 그 세력을 치성하며, 이미 그 세력을 치성하고 나서는 동동연(憧憧然)히 '가만히 해침' 을 이기는 방법으로 여기고 휴식할 줄 모른다.

슬프다. 이는 진실로 '너에게서 나왔다가 너에게로 되돌아간다' 함을 알지 못하는 자이니, 그 훗날의 근심이 어떠하겠는가.

또 독사나 호랑이의 피해는 사람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여 오히려 그를 공격하지 못함을 한으로 여기는데, '가만히 해침' 의 사람됨은 도리어 독사나 호랑이와 같지 않다면 하늘이 벌을 시행함이 또한 당연하지 않겠는가.

삼대(三代)로부터 이후 진 · 한 이래로 가만히 해치는 신하가 어느 세대이든 없지를 않아 그 나라를 위태롭게 하며, 그 집안을 망하여 독해(毒害)가 후세에 흘렀다.

그리하여 후세에 들은 자들이 분연히 그 악함을 꾸짖고 그가 망함을 기뻐하지 않음이 없어서 한번 죽음으로는 보상이 충분히 않다 하였으니, 진실로 천하 만세에 벌을 받은 사람이라 말할만 하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의 생각이 공적(公的)인 것을 가리고, 이익을 도모하는 마음이 의(義)를 어지럽혀 경쟁(競爭)과 투기(妬忌)가 교대로 심술(心術)을 어지럽혀 어질지 못한 마음이 이르지 않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살아서는 왕법(王法)의 엄한 형벌에 빠져 그 집안을 망하고 그 가족을 멸하며, 죽어서는 다생(多生)의 주륙(誅戮)을 받아 모든 악취(惡趣)를 경력(經歷)하면서 초독(楚毒)을 받는다.

밭에는 곡식이 있는데 강아지풀이 그것을 해치며, 채소밭에는 채소가 있는데 거친 잡초가 막아 버렸다면 농포(農圃)가 전원(田園)을 다스리는데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을 간택하겠는가. 그 채소와 곡식은 기르고 그 해치고 막아버리는 것을 제거함은 농포의 직분이다.

더구나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천하를 아름답게 하여 처소를 따라 다스리지 않음이 없음은 전원(田園)의 채소와 곡식이 있는 것과 같으며, '가만히 해침' 이 천하를 해롭게 하여 처소를 따라 어지럽히지 않음이 없음은 전원에 거친 풀 · 강아지풀이 있는 것과 같다.

위에서 말한 시장에서 처형되며, 축생이 되어 우레에 진동하여 죽으며, 음부(陰府)에서 괴로움을 당함이 진실로 부득이 함이라 하겠다.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혜심 진각국사 탄신 제837주년 기념

**제2회 학술대회 및 탄신 다례제**

귀의 삼보하옵시고,

본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는 불향(佛鄕)인 우리 고향 화순(和順)을 세계적으로 빛내신 '선문명송' 의 저자인 혜심 진각국사님의 탄신 제837주년을 맞이하여, **제2회 학술대회 및 제 9회 다례제**를 봉행합니다.

큰스님의 고귀한 정신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간에 함께하시어 좋은 인연공덕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풍요로운 문화 명품 화순의 무궁한 번영과 화합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 일 시 : 2015년 4월 11일(토) 오전 10시
◆ 장 소 : 남산 화순군민회관
◆ 주 최 : (사)진각국사 선양회
◆ 후 원 : 화순군, 화순군의회, 혜원정사 납골 추모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